본지 기획 '광복70년, 불교70년' 불교언론상 최우수상 수상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작 발표… 본지 2년 연속 최우수 '쾌거'

심사위 "한국불교사 이해 도움"
대상엔 BTN 불복장 2부작 선정

본지 연중기획인 '광복70년, 불교70년' 이 제23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지난해 본지 신성민 기자의 '만해 열반 70년, 만해의 길을 가다' 가 신문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동일 부문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11월 12일 제23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작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신문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인 본지 연중기획 '광복 70년, 불교 70년' 은 광복 이후 한국불교가 우리 사회와 어떻게 관계 형성을 해왔는지 짚어볼 수 있는 수작이라고 평가를 받았다.

불교언론문화상 심사위원회는 심사평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여 광복70년 후 지금까지 불교가 우리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심층 취재 기사"라면서 "광복 70주년에 맞추어서 한국불교가 걸어온 발자취를 상세하게 조사, 연구, 정리한 것으로서 한국불교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또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획"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불교언론문화상에는 총 36개 작품이 접수돼 예심을 거쳤으며, 예심을 거쳐 24개 작품이 본선에 올라 8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는 BTN 개국 20주년 특집 '은밀한 의식, 불복장' 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청양 장곡사의 불복장 의식을 통해 대중의 발원이 담긴 복장물과 복장의식을 세밀하게 다룬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부문 최우수상은 EBS 세계문명사 기획 '천불천탑의 신비 미얀마' 가, 우수상은 울산MBC 특별기획 '강신주의 해탈프로젝트' 와 BBS 광복70주년 기념 특집드라마 '다시 찾은 태극기' 가 각각 선정됐다. 신문 부문 우수상에는 법보신문 최호승 기자의 '수행현장 체험기' 가 수상했다.

또한 뉴미디어 분야에서는 어라 캐릭터로 잘 알려진 지찬 스님이 최우수상을, 어플리케이션 절로가 우수상에 각각 선정됐다. 특별상에는 SBS의 '물은 생명이다–반딧불이가 돌아오는 도랑' 과 BBS뉴스 기획보도 '한국불교의 희망, 청년불자가 뛴다' 가 수상했으며, 불교언론인상에는 강상구 KBS 경영위원이 선정됐다.

제23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30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총무원장 해임" vs "종헌종법 권한 無"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유시… 정상화 전권 인곡 스님 일임

태고종의 내홍에 정신적 지주인 혜초 종정 스님까지 나서 유시를 내리는 특단의 칼을 빼들었지만, 총무원 집행부가 이를 거부하고 나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종정 혜초 스님은 11월 11일 태고종 총무원 청사인 사간동 법륜사 앞에서 발표한 유시를 통해 구속된 현 총무원장과 비대위원장 모두를 해임시키고 종단 정상화의 전권을 승정원장 인곡 스님에게 일임했다. 하지만 집행부 격인 총무원 종무회의측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종정 스님의 총무원장 해임은 종헌 · 종법 상 권한이 없음을 못 박았다.

당초 유시 발표는 법륜사 3층 법당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총무원 집행부가 청사를 폐쇄해 법륜사 앞마당에서 긴급히 이뤄졌다.

혜초 스님은 유시를 통해 "노납의 부덕한 소치로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게 되어 너무나 참담하다"며 "먼저 국민과 불자 여러분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면서 유시를 시작했다.

이어 종정 스님은 "그간의 종단 사태에 대해 화합을 위한 많은 종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수행자로서는 용납할 수 있는 미증유의 폭행사건을 촉발됐다"면서 "11월 3일에는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비상대책위원장 종연 스님이 구속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위상이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장한 어조로 밝혔다.

또한 혜초 스님은 "인곡 스님은 현 종단의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종헌종법에 구애됨이 없이 재창종의 의지를 갖고 초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종단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 폐쇄로 청사 앞마당서 발표
"재창종 의지로 갈등 타개" 강조
인곡 스님 "유시 받들어 정상화"
총무원 "해임권한 없다" 반박해

이날 전권을 위임받은 인곡 스님은 "앞으로 전 종도들은 유시를 올바르게 판단해 종무행정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유시를 받들어 폐쇄된 법륜사 앞을 떠나지 않겠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용맹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태고종 총무원장을 대신해 종무행정을 맡고 있는 종무회의는 종정 스님의 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곧바로 발표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11월 11일 태고종 총무원 청사인 사간동 법륜사 앞에서 현 종단 상황에 대한 유시를 발표했다. 하지만 곧바로 태고종 총무원 종무회의는 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서를 내놨다.

태고종 총무원 종무회의 측은 11월 11일 '종정 예하의 유시에 대한 총무원의 입장' 이란 제목으로 입장문서 "현 종단사태로 종정예하께 심려를 끼쳐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유시 내용에 2014년 3월 중앙종회서 호법원장 선출 당시 종회의장의 무리한 의사진행등의 언급이 없음은 물론 종회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로 인해 비대위측의 총무원사 무력 점거와 2월 2일 법원의 가처분에도 문을 닫아걸고 총무원을 마비시킨 당사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음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종무회의 측은 "종정 스님의 총무원장 해임은 종헌 종법상 권한 없는 말씀"이라며 "전권을 위임한 홍인곡 스님은 2001년 이후 15년간 분담금 미납은 물론 한차례 분한 신고도 하지 않아 2014년 3월 승려신분이 정적상태"라고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내비쳤다.

이어 "인곡 스님이 소속한 백련사는 2002년 이후 14년간 분담금을 미납해 모든 행정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고사찰"이라며 "현 종단 사태에 대해 오직 총무원장과 종연스님 탓으로 돌리고 정작 책임 져야 할 주도세력은 언급조차 하지 않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차라리 종연 스님이 측은할 지경이며 금번 유시는 측근의 무리한 요구와 정황을 모르시고 발표한 것으로 향후 정확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주일 · 신성민 기자

조계종 해종언론대책위 본격 활동 시작

11일 1차 회의… 조직 인선 · 활동 계획 결의

공동위원장 우송 · 초격 · 일감 스님
청사 내 해당 언론 사이트 차단
본말사 · 신도단체 등도 지침 시달

조계종 해종언론대책위원회(이하 해종언론대책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해종언론대책위는 11월 11일 1차 회의를 열고 조직 구성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결의했다.

위원회 조직 구성에는 공동위원장에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중앙종회의원 초격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이 선임됐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나왔다. 공통 지침으로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취재지원 중단과 출입금지 조치를 비롯해 △광고 및 개별 후원 중단, 기 게재 광고 삭제 △보도자료 배포 금지, 간담회 및 인터뷰 금지 △접속 금지 동참 △각 사찰 홈페이지 배너 삭제, 공동 지침 배너 게재 등을 정했다.

또한 동참 대상 기관을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및 시설부터 교구본사, 말사, 포교신도단체, 중앙신도회, 각 교구신도회, 각 사찰 신도회, 종립학교, 각급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 조치와 함께 기획실에서 종단 출입기자 관리 정책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해종언론대책위 1차 회의 후 진행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동위원장 초격 스님은 "해종 · 악성 인터넷 매체에 의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비방 · 비난 기사로 인해 한국불교와 종단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면서 "악성 언론사의 보도 행태 근절을 위해 전 종단적 '해종언론대책위원회' 를 구성해 단호한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결의사항 시행 의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11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취임

13일 취임식 개최… "'일하는 비구니회' 되겠다"

수석부회장 효경 스님 등
11대 집행부 인선 확정해
비구니 위상 강화 등 기대

전국비구니회 11대 회장에 육문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전국비구니회는 11월 13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11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취임법회' 를 개최했다. **〈취임식 차주 상보〉**

이날 육문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일하는 비구니회' 라는 선거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천명했다.

육문 스님은 "그간 비구니회는 회관 건립 등 크고 작은 성과들이 많이 있었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구심점이 되지 못한 점, 아직도 열악한 비구니 위상 등 반성의 소리도 없지 않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제11대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 승가의 변화와 발전을 염원하는 6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열망을 안고 오늘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공약집에서 '일하는 비구니회' 가 되겠다고 약속했듯이 11대 비구니회 집행부는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회칙을 제 · 개정하는 일에서부터 비구니스님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공약 내용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육문 스님은 변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육문 스님이 제시한 공약은 △일하는 전국비구니회 △비구니 승단의 위상과 권익 향상 △비구니 스님의 노후복지 증진 △비구니 승가 인재 육성에 기여 △청정한 수행자의 자세로 승가 화합 등의 5대 지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비구니회의 회칙 개정이다. 이에 대해 육문 스님은 공약집을 통해 "임의적이고 애매한 회칙 조항을 명쾌하게 개정해 운영위원 구성이나 종회의원 선출과 자격요건 등 조직 구성과 운영 전반에 합리성을 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집행부 조직 개편을 비롯해 대중 여론을 반영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비구니회 재정 증대, 비구니회관 효율적 활용 방안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전국비구니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비구니회 임의단체 지위 탈피 △비구니 선거권 · 피선거권 제한 법령 개정 △비구니 역량 발휘 지원 △비구니 원로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함께 취임식에서는 새롭게 비구니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인선도 공개됐다. 제11대 집행부는 회장 육문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효경 스님, 부회장 일연 · 상화 · 본각 · 해주 스님, 법룡사 주지 정현 스님, 사서실장 진명 스님, 기획실장 혜조 스님, 총무부장 자현 스님, 재무부장 명연 스님, 교무부장 대현 스님, 사회부장 정관 스님, 섭외부장 혜욱 스님, 규정부장 혜성 스님, 문화부장 혜연 스님, 문화센터관장 선재 스님 등이다.

전국비구니회 11대 집행부가 출범함에 따라 1년여 간의 갈등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성민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73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채널A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MB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tvN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